

**- 일미평등의 차원과 대승철학**

## ▶ 1.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을까?

一切衆生悉有佛性. (모든 중생에겐 불성이 있다)

- 『열반경』 -

- 초기불교에서는 수행을 해도 아라한 정도의 성자는 될 수 있어도 부처는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대승불교가 전개되면서 보살은 물론 중생이라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열반경』에서 불성에 관한 다양한 서술

1. 불성을 공空과 불공不空을 보는 제일의공第一義空이므로 중도라고 인식

2. 십이연기를 관조하는 지혜라고 인식

3. 불성의 인因이 되는 무명과 번뇌의 결박이 바로 불성이라고 인식

▶ “선남자여, 5음이 두 가지니, 하나는 인因이요, 하나는 과果니라. 이 인因의 5음은 과거요 현재요 미래며, 과果의 5음은 과거 · 현재 · 미래이기도 하고, 과거 · 현재 · 미래가 아니기도 하니라. 선남자여, 모든 무명 번뇌 등의 결박이 모두 불성이니, 왜냐하면 불성의 인因인 연고니라. 무명 · 행과 모든 번뇌로부터 선의 5음을 얻는 것을 불성이라 하며, 선의 5음으로부터 나아가 아녹다라삼막삼보리까지 얻나니, 그러므로 내가 경에서 먼저 말하기를, ‘중생의 불성은 피 섞인 젖과 같다’ 하였느니라. 피는 곧 무명 · 행 등의 모든 번뇌요, 젖은 곧 선의 5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모든 번뇌와 선의 5음으로부터 아녹다라삼막삼보리까지를 얻음이, 마치 중생의 몸이 모두 정기와 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하였으며, 불성도 그러하니라.’”

- 『열반경』 -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5음이 불성이라면, 어찌하여 중생의 불성은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나이까?”

“선남자여, 무슨 인연으로 그렇게 뜻을 잃어버리느냐? 내가 먼저 말하기를 중생의 불성이 중도中道라고 하지 않았느냐?” ...

“선남자여, 중생이 이해하지 못함이 중도니, 어떤 때는 이해하고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중생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서 불성이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왜냐하면 범부 중생이 혹은 말하기를 ‘불성이 5음 가운데 있음이, 마치 그릇 가운데 과실이 있는 것과 같다’하며, 혹은 말하기를 ‘5음을 여의고 있음이, 마치 허공과 같다’하나니, 그러므로 여래는 중도를 말하되 ‘중생의 불성이 안의 6입(안, 이, 비, 설, 신, 의)도 아니며 밖의 6입(색, 성, 향, 미, 촉, 법)도 아니고, 안과 밖이 화합함을 중도라 한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래는 말하기를 ‘불성이 곧 중도니,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므로 중도라 한다.’고 하였느니라. ...

▶ 또 선남자여 어떤 것을 안도 아니고 밖이 아니라 이름 하는가. 선남자여, 혹은 말하기를 ‘불성이 곧 외도外道니, 왜냐 하면 보살마하살이 한량없는 겁 동안에 외도 중에 있어서 번뇌를 끊고 마음을 조복하고 중생을 교화한 연후에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으므로, 불성이 외도라고 한다.’ 하며, 혹은 말하기를 ‘불성이 곧 내도內道니, 왜냐 하면 보살이 비록 한량없는 겁 동안에 외도를 닦았다 하더라도, 내도를 여의었으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불성이 내도라고 한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래는 이 두 극단을 막기 위하여 불성은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며, 역시 안과 밖이라고 하나니, 이것을 중도라 이름 한다고 말하느니라.

- 『열반경』 -

- ▶ 『열반경』에서는 무명 번뇌 등의 결박이 모두 불성이고, 불성은 안도 밖도 아니며 동시에 안과 밖이기에 중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한 경전 안에서도 보살의 질문에 따라서 불성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불성을 세간의 어법에 따라서, 질문자의 근기에 맞추어서 설명하기 때문이다.
- ▶ 원효는 『열반경』에서 다양하게 논의되던 불성을 일심의 개념으로 포괄한다. 불성의 체는 일심이고 일심은 오직 부처만이 체득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불성이라고 한 것이며 이 하나의 성품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이다.
- ▶ 부처는 온 우주를 동체대비, 일미평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존재.
- ▶ 인식의 차원이 전체성에 이를 정도의 고차원상태.
- ▶ 부처만이 체득할 수 있는 있는 일심도 불성도 전체성에 이르러 모두를 포괄한 상태.
- ▶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다는 언명은 중생도 그런 전체적 인식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

- ▶ 원효는 모든 중생이 저절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성을 갖고 있지만 부처가 되는 것은 다른 조건이 붙는다고 강조한다.
- ▶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세계관. 중생이 전체성에 이를 수 있는 상태는 세간의 어법이 아니라 출세간의 어법으로만 가능하다.
- ▶ 세간의 어법이라는 것은 3차원 공간관의 인식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입자 단위로 실체화해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세계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
- ▶ 출세간의 어법은 동체대비, 일미평등의 세계관으로 공간성, 시간성의 경계를 해체해서 모든 것을 장場으로 바라보는 것.
- ▶ 즉, 부처의 씨앗을 불성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씨앗이 발화되는 여타의 조건이 중요하고 그 조건의 핵심은 세계관

## ▶ 2. 불성의 실체

- 청화스님은 불성을 우주의 순수한 에너지장이라고 풀이. 여기서 불성을 장場의 패러다임으로 보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불성을 세간의 어법, 3차원 공간관의 인식틀로 바라본다면 청정무구한 영혼과 같은 입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불교의 의식에서 그 출발은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도량은 장(場)이다. 도량청정무하예(道場淸淨無瑕澁)라는 천수경의 도량찬에서 도량(道場)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장을 의미한다. 청정(淸淨)은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며, 무(無)는 없다는 말이며, 하(瑕)는 '티' 라는 말로 잘못이나 허물을 말하고, 예(澁)는 더럽다는 뜻이다. 도량청정무하예(道場淸淨無瑕澁)는 도량이 티끌이나 더러움 없어서 맑고 깨끗하다는 말이다.
- 도량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처처불상 사사불공(處處佛像 事事佛供)"이라는 말처럼 부처는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도 있고, 하는 일 모두가 부처라는 말이다.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이고 모두가 부처라는 뜻이다.



- ▶ -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빛을 이 방향으로 쏘면 x축으로 쏘면 빛의 시공간 경로는 빛의 세계선으로 기울어진다. 다만 입자로서의 '나'라는 경계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 그런 불성은 입자의 상태로서 진과 속을 구분하여 속의 세계를 배제하는 것으로, 격자 공간 속에 갇힌 개념일 뿐, 구체세계를 포괄하는 불성일 수 없다.
- 일심一心은 생멸生滅과 진여眞如 모두를 아우르는 전체.
- 이러한 일심도 온 우주를 포괄하는 하나의 장場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전체성을 나타내는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을 수 있다. 흔히 일심을 한마음, 진아로 번역해서 사용하는데, 이들을 3차원공간관의 인식틀에 기초한 입자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원래의 의미와 상반되는 형용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일심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청정무구한 마음이 아니라 인식의 차원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 진과 속을 동체, 일미로 바라볼 수 있는 중도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것은 모두를 하나의 장場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 ▶ 3. 대승불교에서의 중생관

- 중생에 대한 관점도 대승에 이르러 달라진다. 초기불교에서 중생은 아무리 수행해도 부처가 될 수 없는 존재

- 『법화경』에서는 성문, 연각을 포함한 많은 중생들에게 성불할 수 있다고 수기受記를 주고 있고, 『열반경』에서 모든 중생, 부처를 비방하는 일천제—闍提마저 불성이 있다고 언명하고 있다. 경전에서는 대승불교가 초기불교와 달라진 이유를 중생들의 근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천제까지 불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보는 편이 더욱 타당하다. 이것은 불교의 세계관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생은 이미 충분한 재화를 넘치도록 보유한 존재이지만 혼미함 속에서 그것을 인식하지는 못한 존재인 셈이다.

▶ 世尊 譬如有人 至親友家 醉酒而臥 是時親友 官事當行 以無價寶珠

세존 비여유인 지친우가 취주이와 시시친우 관사당행 이무가보주

: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자는데, 주인 친구는 관청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以無價寶珠 繫其衣裏 與之而去 其人醉臥 都不覺知

이무가보주 계기의리 여지이거 기인취와 도불각지

: 그래서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로 옷 속에 매어 주고 갔는데, 그 사람은 취해 누워서 알지 못하였고,

起已遊行 到於他國 爲衣食故 勤力求索 甚大艱難 若少有所得 便以爲足

기이유행 도어타국 위의식고 근력구색 심대간난 약소유소득 변이위족

: 깨어난 뒤에는 길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의식을 위하여 부지런히 애써 돈을 버느라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만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 於後親友 會遇見之 而作是言 哉※丈夫 何爲衣食 乃至如是

어후친우 회우견지 이작시언 돌재장부 하위의식 내지여시

: 오랜 뒤에 친구를 다시 만났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애답다, 이 사람아. 어찌하여, 의식을 위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我昔欲 令汝得安樂 五欲自恣 於某年日月

아석욕 영여득안락 오욕자자 어모년일월

: 내가 예전에 그대로 하여금 마음대로 5욕락을 누리면서 편안히 살게 하려고 어느날인가

以無價寶珠 繫汝衣裏 今故現在 而汝不知

이무가보주 계여의리 금고현재 이어부지

: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를 그 대의 옷 속에 매어 주지 않았던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그대가 알지 못하고

勤苦憂惱 以求自活 甚爲癡也

근고우뇌 이구자활 심위치야

: 이 고생을 하면서 궁색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매우 가련한 일이다.

- 『법화경』, [오백제자수기품]

▶佛知此等 心之所念 告摩訶迦葉

불지차등 심지소념 고마하가섭

: 부처님이 대중들의 생각을 아시고 마하가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是千二百阿羅漢 我今當現前 次第與授 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

시천이백아라한 아금당현전 차제여수 아녹다라삼막삼보리기

: "이 1천 2백 아라한들에게 내가 이제 차례로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으리라는 수기를 주리라.

於此衆中 我大弟子 憍陳如比丘 當供養 六萬二千億佛然後 得成爲佛

어차중중 아대제자 교진여비구 당공양 육만이천억불연후 득성위불

: 이 대중 가운데 있는 나의 큰 제자인 교진여 비구는 마땅히 6만 2천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런 뒤에 부처가 되리니,

號曰普明如來 應供 正徧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世尊

호왈보명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 이름은 보명(普明)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 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 『법화경』, [오백제자수기품]

## ▶ 4. 대승철학의 세계관

▶ - 천태대사는 석존의 일생의 가르침을 교리내용에 따라 장교藏教, 통교通教, 별교別教, 원교圓教의 넷으로 분류

- 화법사교(化法四教)란?

1. 삼장교(三藏教) 또 약해서 장교(藏教)라고도 하고, 소승교(小乘教)를 말한다. 삼승인(三乘人)을 위하여 사아함경(四阿含經)에 의해서 단공(但空) : 공(空)의 일면(一面)만을 알고, 동시에 불공(不空)의 반면(反面)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공의 도리(道理)가 밝혀지고 석공관(析空觀)에 의해서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어가게 하는 교(教)이다. 이 교(教)의 보살(菩薩)은 견(見). 사(思)의 혹(惑)을 제복(制伏)하여 번뇌(煩惱)를 다 끊지 않고, 중생교화(衆生教化)를 위해서 삼아승지겁(三阿僧祇劫)의 긴 기간에 걸쳐서 깨달음에 이르는 인행(因行)을 실천하기 때문에 이것을 복혹행인(伏惑行因)이라고 한다. 삼차원 공간관에 입각해서 공을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모순과 번뇌가 끊이지 않는다.

▶ 2. 통교의 통은 통동(通同)과 통입(通入)과 공통(共通) 등의 의미이다.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의 삼승(三乘)을 통하여 함께 받는 대승(大乘) 초문(初門)의 교(教)를 말함이다. 공통(共通), 곧 여환즉공(如幻卽空 : 모든 것은 인연(因緣)에 의해서 성립되어 있고 환(幻)과 같은 공(空)이다.)의 도리(道理)에 의해서 체공관(體空觀 : 전체(全體) 그대로가 본래공(本來空)이라고 한다. 교도관(巧度觀)이라고도 한다.)을 관(觀)하여 가는 교(教)이다. 이 교(教)의 보살 가운데 열등(劣等)한 보살은 이 교리(教理)를 알게 이해(理解)해서 앞의 장교(藏教)의 이승(二乘 = 聲聞. 緣覺)과 같은 과(果)를 깨닫고 (통동(通同),의 수승한 보살은 이 교(教)에서 그 속(오 = 奧)에 포함되어 있는 중도(中道)의 묘리(妙理)를 깨달아서 별(別) 원(圓) 이교(二教)에 들어간다. (통입= 通入) 이와 같이 통교인(通敎人)이 별교(別敎)에 전진(轉進)하는 것을 별접통(別接通) : 별입통(別入通)이라고도 한다. 하고 통교인(通敎人)이 원교(圓敎)에 전진(轉進)하는 것을 원접통(圓接通) : 원입통(圓入通)이라고도 한다. 또 통교(通敎)의 보살(菩薩)이 별교(別敎)의 교(教)를 익히기 위해서 별교(別敎)의 수행명목(修行名目)을 가지고 통교(通敎)의 위치(位次)를 나타내는 것을 명별의통(名別義通)이라 한다 . 세계관은 장교와 같이 3차원 공간관이지만 이치를 밝힘이 깊어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가 공(空)하다고 체달하는 체공관(體空觀)을 근본사상으로 한다. 통교의 관점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 3. 별교(別敎)의 별(別)이라 함은 불공(不共)과 역별(歷別)의 의미이다. 곧 이승(二乘)과 공통(共通)하지 않고 다만 보살(菩薩)만을 위한 교(敎)란 뜻으로 (불공 = 不共) 그 점이 전후(前後)의 삼교(三敎)와 다른데, 또 모든 것을 차별(差別)의 면(面)에서 본다는 역별(歷別)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공(空). 가(假). 중(中)의 삼제(三諦)를 차례로 관(觀)하여 중도(中道)의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 중도(中道)는 공(空)이나 가(假)와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단중(但中 = 공(空). 가(假)와는 독립된 중(中)이다)의 이(理)라 하고 그 관법(觀法)은 차례(次第)의 삼관(三觀)이며 또 격력(隔歷)의 삼관(三觀)이라 한다. 공(空)과 유(有)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를 말하였으나 아직 원융무애(圓融無礙)한 이치에는 이르지 못한 교이며, 단중(但中)을 근본사상으로 한다.



▶ 4. 원교는 온 우주는 일심이라는 고차원의 세계관에 이르러 모든 것을 중도로 바라보는 원만하고 완전한 묘리를 말한다.

원교에 이르면 모든 현상은 중도실상中道實相이라고 바라보게 된다. 일색一色과 일향一香 모두 중도 아님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서는 모든 부분이 전체가 되고, 생사가 열반이고 열반이 생사이며, 번뇌가 보리이고 보리가 번뇌이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언명도 원교에서는 중생이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중생 그 자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가리킨다. 모두 일심의 세계관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 - 따라서 장교가 3차원 공간관에 의거한 입자 중심의 세계관이라면, 원교는 온 우주는 하나라는 장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원교에 입각한 불성론은 바로 중생관이며 대중관이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최대치로 규명하는 존재론이며, 인간과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제시하는 인식론이며 세계관이다.

- 이러한 천태불교의 원교적 세계관은 현대물리학에서 새롭게 밝히고 있는 물리적 토대에 가장 상응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홀로그램에서는 부분이 곧 전체인 현상이 발견되고 양자역학에서는 아원자입자의 비국소성을 증명하면서 온 우주가 한 몸이자 동시장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 또한 원교적 세계관은 대중주체의 시대에 부응하는 철학이기도 하다. 들뢰즈는 현대를 수목樹木의 위계적 체계에서 리좀[뿌리줄기]의 노마디즘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권위적 체계는 정보의 집중과 독점에 기초한다. 이를 통해서 대중을 대상화하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는 정보통신이 발달하여 특정 계층이 더 이상 정보를 독점할 수 없다. 정보의 공유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집단지성이 형성되고 있다. 대중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 - 고전물리학에 기초한 실수 입자중심의 세계는 선형성의 패러다임이다. 여기에서는 크기와 방향의 차별이 있다. 인과관계가 일방적으로 진행된다. 목적과 수단, 결과와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 수단이 합리화되고 결과를 얻기 위해 과정이 희생될 수 있었다.

- 양자물리학은 허수로 표현되는 파동, 장의 세계로 비선형성의 패러다임이다. 여기에서는 크기와 방향의 차이가 없으며 원인이 결과가 될 수 있고 결과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수단에 목적이 담겨있고 과정자체가 결과이기도 하다.

- 태도가 본질이라는 것도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언명이다. 태도가 부분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이나 본질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태도 속에 본질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이다. 천태사상에서는 일색-一色, 일향-一香 모두 중도가 아닌 것이 없고, 현상 자체가 바로 중도실상中道實相이라고 밝혔다. 천태불교에 와서 대승불교는 정점을 찍는다.

- 홀로그래피의 필름에서 부분이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피사체를 비추면서 반사되어온 대상광선 외에 피사체를 거치지 않은 채 필름을 비추는 표준광선이 있기 때문이다. 대상광선은 3차원 공간관의 인식틀이자 세계관이다. 여기에서 부분은 부분일 뿐이다. 표준광선은 대상광선보다 한 차원 높은 상태의 인식틀과 세계관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부분은 전체를 담게 된다.

▶ - 칸토어에 의해 현대수학에서 무한집합의 정의는 달라졌다. 보통의 경우 부분집합과 전체 집합은 다르지만 무한집합에서는 무한하게 1대1로 대응하므로 부분과 전체가 같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무한집합에 해당한다.

- 절반이라고 생각한 그 부분집합도 무한하다면 부분과 전체는 같을 수 있다. 이것은 의상대사 법성계法性偈의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여럿 속에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모두이고 모두가 하나이다.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온 세계)가 담겨있고 낱알의 티끌마다 시방세계 들어 있다."는 철학과 상응한다.

- 천태사상에서도 모든 현상 자체가 바로 중도실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드러난 현상이 입자로서 부분이라면 중도실상은 그 이면에 은적되고 접혀져 있는 장을 망라한 전체이다. 부분과 전체가 무한의 영역에서 보면 다르지 않은 것이다.

- 결국 인식차원에 따라서, 인식틀과 세계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게 된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고, 중생 자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은 입자 중심의 세계관에서 횡수로 확장해서 동시장과 공동장이 만들어진 장 중심의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